

중고교의 교육서비스 가격변화에 대한 분석(1990-2004)

김 속 향* · 양 남 희**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외래강사* · 조선대학교 교수**

Changes in Secondary Education Costs (1990-2004)

Kim, Sook Hyang* · Yang, Nam Hee**

*Dong-Guk University, Gyeongju**

*Chosun University***

Abstract

This research was conducted to find out price change of education service. Consumer Price Index annual series data in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from 1990 to 2004 were used for analysis.

First, education price indexes showed an average annual increase of 7.3% during the last 15 years (1990-2004), marking the highest increase among items in the CPI basket. The average annual increase in tuition fees and other fees, expenditure classes of education price, has been 7.5% and 6.0%, respectively.

Secondly, an average increase in tuition fees for two-year college was higher, followed by tuition fees for kindergarten, private four-year college, national four-year college and secondary schools. An average increase in primary school textbook costs was higher in the category of "other fees", followed by junior high school textbook costs, junior high school supplementary book costs and home delivery supplementary book costs

Thirdly, there were no differences in price changes of secondary school textbooks, junior high school supplementary books, high school supplementary books among 16 locations. An average increase in after-school education (selective subjects) for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was higher in Gwangju but lower in Seoul, compared with other cities. An average of 7% difference was seen annually among regions. When the year 2000 was considered as 100, the most significant gains were seen in Kwangju at 80% and Gangwon at 57%. An increase in after-school education (all subjects) for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was higher in South Cholla Province but lower in North Gyeongsang Province. An increase in after-school education (all subjects) for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was higher in South Cholla Province but lower in North Gyeongsang

1) 교신저자: 김속향(nnnksh@hanmail.net)

본 연구는 2004년도 조선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에 의해 이루어졌음

Province. An average of 7% difference was seen annually in the annual increase. When the year 2000 was considered 100, most significant increase was seen in Busan and South Gyeongsang Province at 37% and Jeju Island at 34%.

주제어(Key Words) : 중고교(Secondary schools), 교육가격(education price), 지역(location)

I. 서 론

대학입시와 관련하여 “입시지옥”, “고3병” 혹은 입시생 자녀가 있는 부모 특히 엄마를 “고 3엄마라고 부르는 통용어가 생길정도로, 대학입시생이 있는 각 가정은 자녀가 대학에 입학 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가정의 정상적인 기능이 마비되기도 한다(정영숙,1996).

이러한 현상은 대입을 준비하는 중고등학생의 교육비 증가로 연결되고 있다. 정영숙(1996)은 중고교생이 있는 가계의 교육비는 총소비지출액의 24.5%를 차지하며, 그 중에서 공교육비는 10.2%, 사교육비는 14.2%로 나타났다. 이것은 어떤 다른 소비지출 비목보다 지출비율이 높다고 보고 하였다. 지출규모를 보면, 사교육비는 고등학생 217,000원, 중학생 174,600원으로 총소득에서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지출 비율은 고등학생 13%, 중학생 10%로 나타났다(이승신, 2002). 여기에 서울시 고등학생 납입금 1분기당 217,000원, 중학교 납입금 1분기당 159,300원(소비자물가조사 가격월보, 2000) 합한다면 가계의 교육비 지출규모는 증가할 것이다. 자녀가 중고등학생일 경우 취학 전이나 초등학생의 경우보다 월평균 사교육지출액이 훨씬 높다(이승신, 2002).

이러한 많은 교육비 때문에 정부와 학계에서는 교육비 지출의 원인(김현진, 2004), 교육비 실태규모 및 대처방안(양승실, 2004b) 등에 대한 많은 연구들을 수행하였다. 또한 교육비 과다지출이 소비균형을 왜곡하고 경제적불평등을 야기한다는 연구도 많았다(손상희·정영숙 2003; 이성림, 2002; 정영숙, 1999).

중고등학생의 교육 물가는 아니지만 전체 교육서비스 물가가 지난 23년간(1980-2002) 연평균 9%로 소비지출 비목 중에서 가장 많이 상승하였다(김숙향·김혜선, 2004). 교육 하부비목의 18년간(1982-2000)의 물가변화를 보아도

공교육물가 11.96%, 사교육물가 7.78%(이성림, 2002)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었다.

교육 가격상승이 최근 20여 년 간 타 지출비목보다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물가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조사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대학입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중고등학생의 공교육인 납입금 가격변화와 사교육인 기타교육 가격변화의 실태를 시계열로(1990-2004) 파악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중고등학생 교육과 관련된 가격변화와 주요 도시의 교육가격변동을 파악함으로써 가격변인을 연구대상으로 고려하지 않았던 많은 교육비 연구들과 접목시키면 교육비의 과다지출의 원인 및 개선점을 찾는 데 기초자료로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II. 선행연구 고찰

1. 중고교의 교육비의 지출규모

OECD(2001)에 의하면, 정부부담 공교육비와 사부담 공교육비를 포함한 우리나라 전체 공교육비 규모는 GDP 대비 7.3%이며 공교육비 중 사부담 비중은 80%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일본과 더불어 OECD 국가 중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었다(한유경, 2004).

신세호 외 5인(1991)은 전국의 초중고등학생의 과외학습에 대한 인식 및 실태를 조사한 연구에서 고등학생(63.9%)과 중학생(40.6%) 모두 방학중에 과외수업을 받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고등학생은 개인 및 소그룹 지도 (60.6%)를 중심으로 과외학습이 이루어지는 반면 중학생은 학원(63.9%)을 중심으로 과외수업을 받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고등학생의 과외교사는 대학생 및 학원강사(39.6%)가 가장 많았다. 고등학생의 평균 과외학습비는 22만원으로 이는 1980년의

6만9천원(90년 불변가격)에 비해 10년 동안에 약 3배 증가한 것이다.

오영수 연구(1992)에 따르면 대구시 내 중학교 3학년 학생과 학부모 826명을 대상으로 사교육비 지출형태를 그 성격에 따라 학생 개인별로 지출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는 개인 사교육비(학용품 및 준비물비, 참고서비 및 부교재비, 교통비, 용돈 등)와 학교단위로 징수되어 개인별 차이가 거의 없는 학교 사교육비(보충수업비, 시험지대금, 수학여행비, 앨범비등), 그리고 과외비의 세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연간 사교육비 490,692원(월평균 40,891원)에서 개인 사교육비 55%, 과외비 30%, 학교 사교육비 15%로 나타났다.

박상학(1992)은 서울소재 고등학교 2, 3학년 학생들의 과외학습에 대해 조사한 결과, 50.3%가 과외학습을 받으며 과외형태는 개인지도와 대학생 과외를 가장 많이 이용한다고 하였다. 과외비용은 10만원 미만인 30.3%, 2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인 21.3%로 나타났으며 100만원 이상의 고액 과외도 5.6%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옥(1995)에 의하면 사교육비 지출액을 항목별로 1995학년도 일반계 고등학교 공납금(220,800원)과 대비해 보면 과외교습비(학원, 그룹지도, 개인, 대학생 등, 495%), 취미교육(128%), 부교재 구입비(54%), 보충수업비(35%), 잡비(13%), 학교행사 참여비(10%)의 순서로 지출되었다. 전체 사교육비의 지출은 학교공납금 대비 735%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성인(1996)은 서울시 강남과 강북지역의 인문계 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과외학습비 지출에 따른 재정문제에서 조사대상자의 월평균 과외학습비(학교밖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임, 기술, 기능, 취미활동을 위한 교습행위는 제외)는 43,200원이며 이는 월평균 생계비의 28%를 차지하는 것이다. 인문계 고등학생의 분기당 공교육비가 242,300원인 점으로 보아 교육비의 대부분은 사교육비인 과외학습비가 차지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박미희·여정성(2000)은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1997년 3월 20일부터 4월 4일까지 전국 5,004가구의 3세부터 대입 재수생까지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중학생의 경우 총사교육비가 월평균 136,763원으로 가장 높았고, 고등학생, 초등학생, 취학전 아동 순으로 지출되고 있

었다. 중학생의 1인당 총사교육비 136,763원 중에서 학원비로 93,064(68.0%), 과외비로 31,362원을 지출하였다. 고등학생은 1인당 총사교육비로 117,754원을 지출하는데 이중 학원비가 73,885원(62.7%)으로 가장 많고 과외비, 보충학습비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고등학생의 사교육비의 60%이상은 학원비로 지출되고 있었다.

중고등학생의 교육비 지출탄력성은 아니지만 전체 도시 가계의 18년간(1982-2000)의 공교육비 지출탄력성은 평균 0.2로 필수적인 지출비목이었다. 사교육비 지출탄력성은 평균 1.5로서 1보다 크지만 1998년 이후 지출탄력성이 1이하로 나타나 경제 위기 이후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의 거품이 제거되고 필수적인 지출로 전환되었다고(이성림, 2002) 보고 하고 있다.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이 증가한다는 연구들은(박미희·여정성, 2000; 유형선·윤정혜, 1999; 정영숙, 1996) 많았다. 소득을 계층화해서 분석한 선행연구에서도 계층간에 지출규모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중고등학생 이상의 자녀를 둔 주부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과외이용률을 보면, 저소득층은 58.0%, 중산층 71.2%, 고소득층 80.4%로 계층이 높을수록 사교육 이용률이 높았다(손상희·정영숙, 2003). 과외 월평균지출액도 저소득층은 78,000원, 중산층 165,000원, 고소득층 420,000을 할애하고 있어 하위층보다 5배를 상회하고 있었다(정영숙, 1996).

고등학생 이하의 자녀가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상대적 빈곤선으로 소득계층을 분류한 결과, 저소득층에서는 자녀 사교육비 지출이 중소득층과 고소득층에 비해 매우 낮아 사치재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앞으로 저소득층가계와 중소득층, 고소득층간에 사교육지출의 격차가 더욱 더 커지게 되고 계층간 자녀교육 효과의 격차로 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아 저소득층의 공교육강화가 시급하다고 보고 있었다(이승신, 2003).

정영숙(1966)은 중고등학생의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공교육비 지출은 인적자본이론과 관련이 있고 사교육비는 선별가설이론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1990년대 후반의 한국의 부모들은 학력에 의해 취업, 결혼, 인간관계가 결정되는 학력사회로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자녀들이 교육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동기인 선별기능 인식 동기가 과외비 지출에 크게 영향을 미

치고 있었다(유형선·윤정혜, 1999).

교육비는 지출부담이 되지만 실제로 지출의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지출의 고정성이나 중요도로 인하여 다른 비목에 비하여 행동을 하는데 제한을 받으며, 특히 지출점 검노력정도가 가장 작은 비목으로 나타났다(강이주·성영애, 1999). IMF 이후에도 교육비는 가계의 지출구성비에서 줄어들고 있지 않았다(손상희·정영숙, 2003; 소연경, 2000). 따라서 교육비는 이론적으로는 생존에 필수적인 비목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는 필수재적 성향이 높은 비목으로 보여진다.

2. 교육서비스 가격

정부는 물가안정의 차원에서 중고등학교 납입금물가를 관리해왔다. 예를 들어, 정부는 각 시·도가 평균 8.9% 인상한 올해 중고교 납입금을 자율적으로 재조정해 낮춰줄 경우 이로 인한 지방교육 재정 부족분을 정부재정에서 전액 보전해주는 것 등이다. 또한 수강료 담합, 과다인상은 즉시 시정토록 하는 한편 조정명령에 불응할 경우 폐쇄, 영업정지 또는 과세자료 통보 등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해 나름대로 교육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조선일보, 2006). 그러나 소비지출 비목의 물가 중에서 교육비물가는 지난 20여년간(1980-2002) 가장 많이 상승한 비목이었다(김숙향, 김숙향, 2004).

2004년 대비 2005년의 교육비 물가 상승률을 교육기관 별로 보면, 국공립대 납입금 상승률이 8.3%로 가장 높았고 유치원 8.2%, 대학원 7.8%, 전문대 6.8%, 사립대 5.4%, 중고교 2.9% 순이었다. 사교육 항목인 학원 수강료 상승률은 입시학원 종합반이 5.1%로 최고인 반면 입시학원 단과반은 2.4%로 보습학원, 미술학원보다 높았다. 이외에 기타교육물가 중 자격증 응시료(6.7%), 중학교 참고서(4.7%), 학교 보충학습비(4.1%), 학교기숙사비(4.1%), 사전(3.0%) 등이 상승하였다(연합신문, 2005년).

교육물가의 18년간(1982-2000)의 변화를 보면, 공교육 물가는 11.96%, 사교육물가는 7.78% 증가하여 특히 공교육 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교육비 가격 탄력성을 보면, 공교육비 가격탄력성은 평균 1.49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공교육에 대한 가계의 수요가 매우 강력하고 공교육

비지출은 자유재량적이기 보다는 강제적인 지출임을 반영한다고 해석하였다. 공교육가격 1% 증가에 대한 공교육비지출은 실질가치로 연평균 0.5%증가하였다. 즉 공교육비의 급격한 가격상승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공교육비 지출을 증가시켜왔다(이성림, 2002).

사교육비지출탄력성은 2.63으로 사교육비 물가상승에 대하여 탄력적으로 사교육비지출을 증가시켜 왔다. 이것은 사교육에 대한 수요가 매우 크거나 시장에서 사교육 공급이 사교육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즉 사교육에 대한 초과수요(excess demand)가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이성림, 2002).

가계소득계층을 5개 집단으로 분류해서 교육물가상승에 대한 교육비지출비율의 반응을 시계열(1980-2002)로 살펴본 결과, 소득이 가장 높은 5분위집단을 제외하고 모든 계층에서 교육가격이 상승해도 지출을 줄이지 않은 필수재 성향을 가진 비목으로 해석하였다(김숙향, 김혜선, 2004). 그리고 교육물가상승은 1, 3, 5분위에서 주거광열비 지출비율을 감소시키고 3분위에서는 외식제의 식품품 지출비율을 감소시켰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물가상승이 선택재보다 필수재 비목의 지출비율을 줄임으로써 소비불균형 및 왜곡을 가져온 것으로 분석하였다(김숙향, 김혜선, 2004).

이러한 여러 결과들을 보면 재화 및 서비스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가 감소하는 일반적인 수요법칙이 교육비에서는 발생하지 않는 것 같다. 우리나라의 교육서비스 가격의 상승은 일반적인 시장경제 원리로 설명하기 보다는 학교체제로 인해 파생된 수요의 성격을 지녀(송유경, 2004) 독특한 사회구조 위에서 전개되고 있다고(양승실, 2004a) 보여진다.

교육서비스 가격에 대한 선행연구들이 수행되고 있었지만 교육서비스의 가격을 이루고 있는 세부 항목인 중고교, 대학 등의 공교육인 납입금과 교과서, 참고서, 단과(종합)입시학원 등과 같은 사교육의 가격변화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는 미흡한 편이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연구문제1: 중고교 교육비가격이 포함되어 있는 교육비

가격과 타 비목의 가격변화는 어떠한가?

연구문제2: 중고교 교육비가격과 다른 교육단계(유치원, 대학교)의 교육비 가격변화는 어떠한가?

연구문제3: 중고교의 납입금과 기타교육의 가격변화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3-1: 중고교의 납입금 가격변화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3-2: 중고교의 참고서 가격변화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3-3: 단과입시학원의 가격변화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3-4: 종합입시학원의 가격변화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2. 분석자료

연구에서 사용된 분석자료는 물가연보의 소비지출 비목의 물가지수이다. 소비지출 비목의 물가지수는 통계청 DB에서 15년간(1990-2004)의 시계열자료를 다운받았다. 소비지출 비목의 가격 정의는 “물가연보”의 개념에 준한다. 시계열분석을 하기위해 각 항목별 물가지수는 2000년 기준의 전도시 소비자물가지수로 환산하였다(2000=100). 개별가계가 구매하고 있는 수천여가지의 상품과 서비스의 시장가격과 구매량을 파악하기 어려워서 소비지출 비목의 가격을 소비지출 비목의 물가로 대체하여 분석하였다.

물가연보에서 품목선정은 기준년도의 도시가계조사 결과

에서 나타난 조사항목별 월평균 소비지출액이 총소비지출액(가중치모집단)의 1/10,000 이상이 되는 항목으로부터 동중 상품군의 가격을 대표할 수 있고, 시장에서 가격조사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상품을 조사품목으로 선정하였다. 조사지역은 36개 주요도시이다. 조사대상처는 약 13,000여 개의 소매점포 및 서비스업체이다. 조사시점 및 빈도는 농축수산물은 월 3회, 공산품 및 서비스 품목은 월 1회 조사한다. 조사방법은 조사담당직원이 조사대상처를 직접 방문하여 타계식 면접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교육(서비스) 가격의 개념은 통계청 소비자물가에서 제공되는 “교육 물가”로 대체한다. 교육물가는 공교육으로 인식되는 납입금물가(유치원, 중고교, 전문대학, 사립대학, 국공립대학)와 사교육으로 인식되는 기타교육물가(피아노, 미술학원, 보습학원, 전산학원, 가정학습지, 중고교 교과서, 중학교참고서, 고등학교참고서, 단과입시학원, 종합입시학원)이다. 교육물가의 세부항목들의 명목가격은 연 단위로 출판되지 않고 월 단위로 각 지역별로 제시되고 있었다(소비자물가조사 가격월보, 2000). 본 연구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명목가격은 교육물가가 2000년 기준 100으로 환산되었기 때문에 2000년 1월의 명목교육 가격들을 제시하였다(표1.2 참조). 중고교 교육관련 세부항목 물가지수들이 1990년부터 통계청에서 제공하고 있어 1990년부터 2004년까지 분석기간을 선정하였다.

<표 1> 교육물가조사의 조사규격 및 가격

항목 명	조사규격 및 가격(원)
중학교교과서	국어(632원), 수학(1,333), 도덕(1,243), 과학(1,064), 국사(1,345), 영어(1,138), 사회(1,247)
고교교과서	국어(1,991), 윤리(1,150), 정경(820), 국사(1,175), 사회(1,873), 수학(2,809), 과학(2,225), 영어(2,362), 제2외국어(1,367)
참고서(사전)	영어사전, 1권(27,000), 고교영어참고서(10800), 고교수학참고서(14000), 중학참고서(1,2)2학년 주요공통과목, 8권(555000), 초등참고서(1,2) 전과1권(25,000),
가정학습지(1,2)	초등학생용 주간학습지, 3학년, 1개월(25,000), 중학생용 전과목, 1년(180,000)
납입금	중학교(159,300), 고교(281,100), 전문대(1,738,500), 국공립대(1,200,444), 사립대(2,185,3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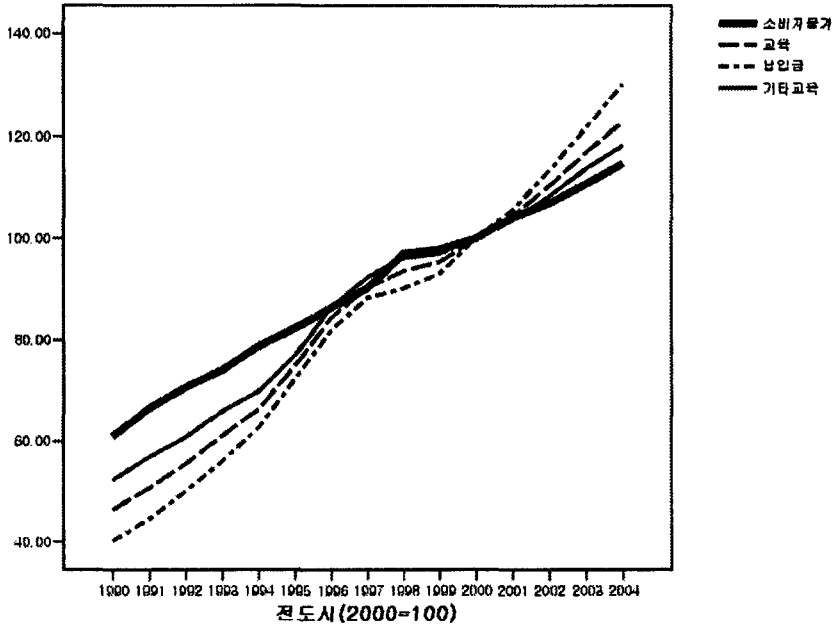
자료: 소비자물가조사 가격월보(2000년 1월, 서울시), 통계청.

< 표2 > 지역별 중고교 관련 교육비 가격

지역	중학교 납입금(1분기)	고교 납입금(1분기)	단과입시학원(월)
서울	159,300	281,100	38,983
부산	154,200	273,060	33,000
대구	157,200	277,200	33,625
인천	156,000	275,700	34,500
광주	155,000	274,410	41,333
대전	155,400	274,800	50,000
울산	144,740	256,440	48,333
경기도(수원)	156,000	277,200	50,000
" (성남)	156,270	277,320	50,667
" (의정부)	156,270	277,320	40,000
" (안양)	156,000	277,320	54,500
" (부천)	155,700	276,900	40,500
" (고양)	156,270	277,320	45,333
강원도(춘천)	137,300	197,300	40,000
" (원주)	148,700	206,950	62,500
" (강릉)	148,700	206,950	50,000
충남(청주)	144,900	262,500	40,000
" (충주)	144,900	244,800	40,000
충북(천안)	151,200	223,500	40,000
" (공주)	154,500	223,500	40,000
" (보령)	149,700	274,800	40,000
전북(전주)	141,600	251,100	42,667
" (군산)	141,600	221,700	40,000
" (남원)	141,600	221,700	35,000
전남(목포)	141,000	221,650	50,000
" (여수)	141,000	219,900	50,000
" (순천)	141,000	219,900	47,500
경북(포항)	145,200	235,800	43,500
" (경주)	145,200	235,800	50,000
" (안동)	145,200	235,800	34,000
" (구미)	145,200	277,200	33,625
경남(창원)	145,500	256,200	52,500
" (마산)	145,740	254,400	41,000
" (진주)	145,740	256,200	50,000
제주도(제주)	142,200	251,400	44,200
" (서귀포)	142,200	194,700	37,250

자료: 소비자물가지조사 가격월보(2000년 1월, 서울시), 통계청.

<그림 1> 소비자물가, 교육, 교육 하부비목의 물가변화추이



3. 분석방법

분석 자료는 EXCEL과 SPSS P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년 대비 상승된 백분율과 평균 및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IV. 결과 및 해석

1. 중고교 교육비 가격이 포함된 교육비 물가와 타 비목의 물가 상승률 추이

최근 15년간의(1990-2004) 소비자출 비목별 물가변화를 보면(표3 참조), 교육(7.26%), 광열수도(7.25%), 식료품(5.24%), 교통통신(4.89%), 보건의료(4.31%) 순으로 상승하였다. 따라서 10대 소비자출 비목 중에서 최근 15년간 가장 많이 상승한 비목은 교육물가였다. 특히 2000년경부터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높게 증가하고 있었다(그림1 참조).

<표 3> 중고교 물가가 포함된 교육물가와 타 비목의 물가 상승률 추이

소비지출 비목의 물가	연평균 상승률(표준편차)
식료품	5.24(3.04)
주거비	3.85(3.46)
광열수도	7.25(7.07)
가구집기,가사용품	2.47(2.38)
피복 및 신발	2.78(1.57)
보건의료	4.30(3.19)
교육	7.26(3.34)
(납입금)	7.54(3.95)
(기타교육)	6.03(3.07)
교양오락	1.43(1.62)
교통통신	4.89(3.53)
기타잡비	2.51(2.51)
소비자물가지수	4.63(2.19)

자료: 물가연보, 2000=100, 1990-2004, 전도시

<표 4> 중고교 납입금물가와 다른 교육단계의 물가상승률 추이

	유치원물가	중고교물가	전문대학물가	사립대학물가	국공립대학물가
1990	39	44	28	37	45
1991	45(15.1)	47(5.6)	35(23.6)	42(15.1)	49(8.4)
1992	49(10.1)	52(11.7)	43(22.5)	49(14.4)	53(9.2)
1993	54(9.2)	57(9.5)	51(20.6)	57(16.8)	59(11.00)
1994	60(12.4)	63(10.3)	60(17.0)	65(13.6)	65(11.1)
1995	72(19.1)	73(16.1)	70(16.4)	73(13.8)	74(12.5)
1996	82(15.0)	80(10.2)	82(17.5)	84(14.7)	83(12.4)
1997	90(9.3)	85(6.1)	92(11.2)	91(7.8)	88(6.8)
1998	93(4.2)	86(0.9)	93(2.1)	93(2.0)	90(2.4)
1999	94(0.9)	93(7.6)	94(0.3)	93(0.6)	92(2.1)
2000	100(6.3)	100(8.1)	100(6.8)	100(7.5)	100(8.4)
2001	110(9.6)	102(1.8)	106(5.7)	106(6.0)	107(6.5)
2002	120(9.3)	109(6.6)	114(7.5)	113(6.4)	116(8.8)
2003	129(7.8)	115(6.4)	122(7.3)	121(7.1)	128(10.5)
2004	140(8.2)	121(4.7)	131(7.6)	129(6.7)	143(11.2)
평균	(9.67)	(7.54)	(11.86)	(9.46)	(8.67)
표준편차	(4.50)	(9.67)	(7.64)	(5.20)	(3.30)

자료: 물가연보, 연평균, 전도시, 2000=100, ()는 전년대비 변화율임

교육 하부비목별 물가변화추이를 보면, 납입금물가 증가율이 연 평균 7.54% 상승하여 사교육인 기타교육 물가 6.03%보다 높았다.

공교육인 납입금의 상승된 물가는 사교육 물가와 달리 모든 소득계층에서 불가피하게 강제적으로 지출해야 할 상황이다. 동일한 납입금 가격(금액)도 소득이 높은 계층보다 소득이 낮은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더 경제적 부담이 되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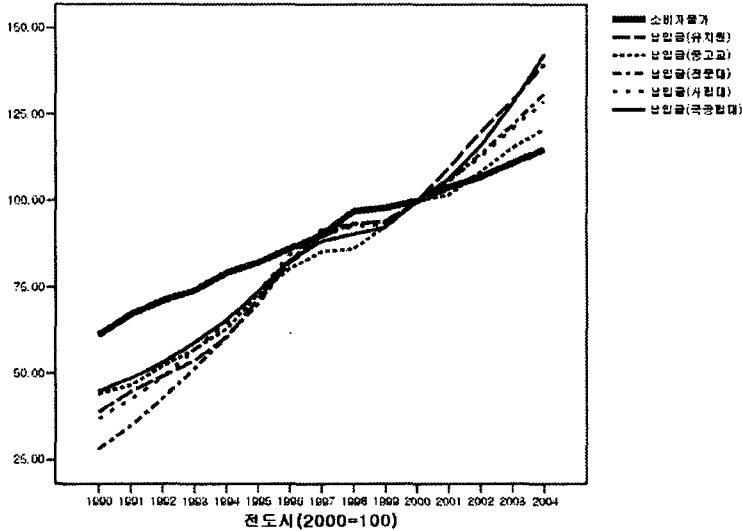
납입금 물가는 1990년부터 2000년까지 소비자물가 및 기타교육물가보다 낮다가 2000년 이후부터 다른 비목보다 높게 상승하고 있었다. 기타교육물가는 1991년부터 2000년까지 전체 소비자물가 및 납입금물가보다 높게 상승하였다. 2000년 이전에는 기타교육 물가가 상승을 주도했고 그 이후에는 납입물가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었다(그림1 참조).

2. 중고교 교육비물가와 다른 교육단계의 물가상승률 추이

1) 중고교 납입금 물가와 다른 교육단계의 물가상승률 추이

연평균 납입금물가를 교육단계별로 분석한 결과(표4 참조), 전문대 납입금(11.9%), 유치원 납입금(9.7%), 사립대학 납입금(9.5%), 국공립대학 납입금(8.7%), 중고교 납입금(7.5%) 순으로 상승하였다. 이 중 중고교 납입금 물가의 7.5% 상승은 다른 교육단계의 상승률(8.7%-9.7%)보다 낮았지만 소비자물가 상승률 4.5%보다 3%이상 상승하고 있었는데, 특히 2000년 이후부터 소비자물가를 상회하기 시작했다(그림2 참조).

<그림 2> 교육 단계별 납입금 물가 변화 추이



2) 중고교 기타교육물가와 다른 교육단계의 기타교육 물가 상승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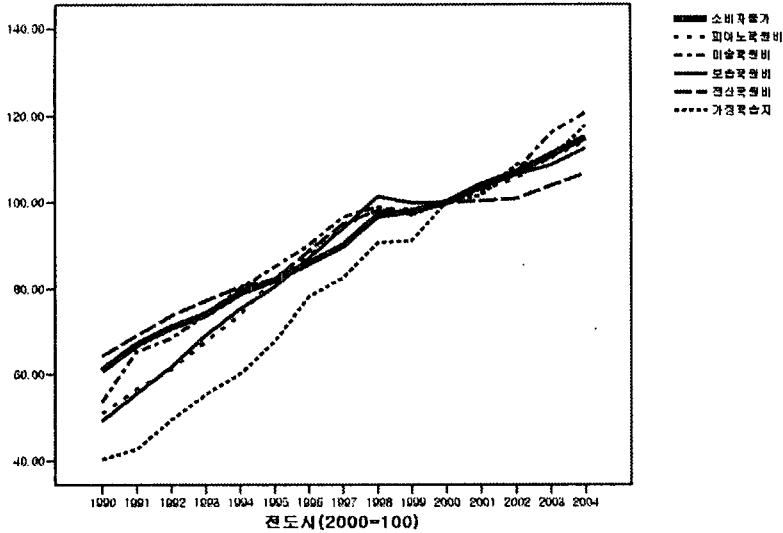
교육단계별로 기타교육 물가변화를 분석한 결과(표5 참조) 초등학교과서(8.7%), 중학교교과서(8.3%), 중학교참고서(8.2%), 가정학습지(8.1%), 종합입시학원(7.4%), 보습학원(6.2%), 미술학원(6.1%), 피아노(6.0%), 단과입시학원(6%), 고등학교참고서(5.9%), 전산학원(3.7%)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5> 중고교 기타교육물가와 다른 교육단계의 기타교육 물가변화 추이

연도	유치원, 초등학교					중, 고등학교				
	피아노	미술학원	보습학원	전산학원	가정학습지	중고교교과서	중학교참고서	고등학교참고서	단과입시학원	종합입시학원
1990	51	54	49	64	40	38	42	59	53	47
1991	57(11.0)	65(21.6)	56(13.0)	69(7.6)	43(5.9)	42(9.0)	45(6.4)	62(5.6)	57(6.9)	50(6.3)
1992	61(8.2)	68(4.8)	62(11.1)	74(6.6)	49(15.9)	45(6.7)	45(10.4)	63(1.9)	61(6.6)	55(10.1)
1993	68(10.5)	74(8.1)	69(12.1)	77(4.8)	55(12.1)	47(5.7)	48(5.6)	70(10.7)	66(7.9)	60(8.2)
1994	74(9.4)	80(8.2)	75(8.9)	80(4.2)	60(8.7)	49(4.4)	48(1.3)	73(3.8)	10(1.0)	64(7.7)
1995	82(11.4)	85(6.2)	80(6.8)	82(2.1)	68(12.3)	52(6.0)	55(13.7)	78(7.4)	78(17.0)	77(19.5)
1996	88(6.2)	90(6.0)	87(8.3)	89(8.0)	78(15.6)	64(21.9)	76(37.9)	83(6.1)	88(11.8)	90(16.4)
1997	94(7.7)	97(7.3)	94(7.9)	95(7.0)	83(5.7)	67(5.4)	86(13.7)	87(5.7)	94(7.0)	94(5.5)
1998	99(4.6)	99(2.5)	101(7.9)	98(3.4)	91(9.7)	65(-2.2)	89(3.5)	91(4.3)	96(2.3)	97(2.9)
1999	99(-0.7)	97(-1.9)	100(-1.5)	97(0.8)	91(0.5)	66(0.9)	97(8.3)	96(5.8)	96(-0.4)	98(0.9)
2000	100(1.5)	100(2.9)	100(0.1)	100(2.6)	100(9.8)	100(51.1)	100(3.4)	100(3.8)	100(14.7)	100(2.1)
2001	103(2.7)	103(3.3)	103(3.3)	100(10.4)	102(1.7)	106(5.7)	102(2.2)	103(3.2)	104(4.3)	106(5.8)
2002	106(2.8)	107(3.9)	107(3.1)	101(0.5)	109(7.0)	116(9.9)	110(7.2)	106(2.8)	108(3.9)	112(6.2)
2003	111(4.6)	116(8.2)	109(2.1)	104(2.3)	110(1.2)	110(-5.3)	120(8.9)	124(17.1)	114(5.4)	120(7.1)
2004	114(3.2)	121(4.0)	113(3.5)	107(2.7)	118(7.0)	106(-3.3)	122(2.2)	129(4.0)	120(4.9)	126(4.6)
평균	(5.98)	(6.07)	(6.18)	(3.72)	(8.08)	(8.27)	(8.19)	(5.89)	(5.96)	(7.36)
표준편차	(3.76)	(5.28)	(4.48)	(2.78)	(4.93)	(13.40)	(9.53)	(3.89)	(4.39)	(4.6)

자료: 물가연보, 연평균, 전도시, 2000=100. ()는 전년 대비 변화율임

〈그림 3〉 유치원, 초등학교의 기타교육 물가의 변화 추이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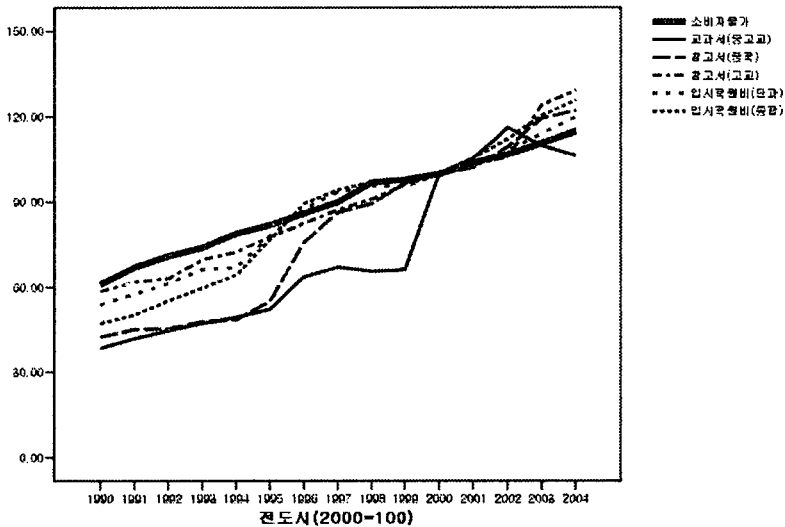
중고교교과서, 중학교참고서, 종합입시학원의 물가가 연평균 7-8%로 상승했으며 단과입시학원과 고등학교참고서 물가는 연평균 6%로 상승하고 있었다. 중고교교육 관련 물가들은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연평균 2% 이상 높았으며, 2000년 이후부터는 소비자물가를 상회하기 시작했다(그림4 참조). 중고교의 사교육물가는 미술학원물가, 피아노학원물

가 보다 상승률이 높았다.

3. 중고교의 납입금 및 기타교육 물가의 지역별 상승률 추이

교육물가의 하부 품목 중에서 중고교의 교과과정과 관련 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중고교납입금, 중학교참고서, 고등학교참고서, 단과입시학원, 종합입시학원을 선정하여 지역별로

〈그림4〉 중고교의 기타교육 물가변화 추이



15년간(1990-2004)의 전년대비 변화하는 백분율의 평균을 계산하였다(표6,7,8 참조).

중고교참고서는 지역마다 전년대비 변화된 백분율의 평균 차이가 없어서 표로 제시하지 않았다. 중학교 참고서물가는 전 지역이 연평균 8.19% 상승하여 소비자물가 상승률 4.63%보다 2배 정도 상승하고 있었다.

중고교 납입금 물가지수가 1990년에 비교적 낮은 43인 지역이 경기도, 서울, 부산, 대전, 인천이었다. 그러나 이 지역들은 2004년에는 대부분 120을 넘으면서 타 지역보다 비교적 높은 수치로 변화했다. 특히 울산은 1990년에는 가장 낮았는데 2004년에는 13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00년을 기준으로 보면, 중고교의 납입금의 물가상승추이는 울산(33%), 제주(26%), 부산(22%), 대구(2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충북, 경남, 경북이 10-13% 상승으로 비교적 낮았다. 2000년 1월 기준 명목가격으로 보면, 가장 많이 상승한 울산지역은 중학교 납입금 144,740원, 고등학교 납입금 256,440원에서 33% 상승하여 192,504원, 341,065원으로 계산되었다. 제주도는 중학교 납입금 142,200원, 고등학교

납입금 251,450원에서 26%상승하여 179,172원, 316,764원으로 계산되었다. 낮게 상승한 충북은 중학교 납입금 151,800원, 고등학교 납입금 240,600원(3개 지역 평균)에서 10% 상승하여 166,980원, 264,660원으로 상승하였다. 경북은 중학교 납입금 145,200원, 고등학교 납입금 246,150원에서 13% 상승하여 164,076원, 249,145원 상승하였다. 2000년 1월 기준으로 보면, 납입금 중에서 중학교 납입금의 차이는 크지 않고 고교납입금에서 차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교납입금은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과 경기도, 경북 지역의 납입금 가격이 높았고 가격 상승률도 이 지역이 높게 나타났다.

15년간(1990-2004)의 중고교 납입금의 연평균 상승추이를 보면, 서울시(7.97%), 대전시(7.79%), 부산시(7.78%), 대구시(7.65%), 경기도(7.61%), 인천시(7.59%), 울산시(7.28%), 광주시(7.40%), 제주도(7.03%), 전북(6.76%), 경남(6.72%), 경북(6.41%), 전남(5.93%), 강원도(5.77%) 순으로 높게 상승하였다. 경기도를 제외하고 대체로 연평균 8%정도 상승하였고 가장 낮게 상승한 전남이나 전북은 연 평균 6%정도

<표 6> 중고교의 납입금 물가의 지역별 변화 추이

지역	강원	경기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울산
1990	55	43	48	48	51	49	49	50	46	43	43	44	45	43	43	42
1991	58	45	51	50	54	51	52	52	49	45	46	46	47	45	46	45
1992	62	50	56	56	59	57	58	59	54	51	51	52	53	51	51	51
1993	67	55	62	61	65	63	64	64	59	56	56	57	58	56	56	56
1994	74	61	67	66	71	68	69	69	64	61	62	63	64	61	62	62
1995	82	72	75	73	80	77	77	77	74	72	72	73	74	72	72	71
1996	88	81	83	80	87	84	84	83	81	79	80	81	82	79	80	79
1997	91	86	88	85	91	89	88	89	86	84	85	86	86	84	85	86
1998	92	87	88	86	91	89	89	90	86	85	86	87	87	84	86	91
1999	96	94	95	92	95	95	95	95	92	92	91	94	94	91	92	95
20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2001	101	100	100	104	103	103	105	101	102	101	102	103	104	102	101	108
2002	108	107	108	106	106	109	112	108	104	110	109	110	107	108	108	116
2003	114	112	113	109	109	116	122	115	107	118	117	117	114	116	114	125
2004	119	117	118	113	113	121	126	118	110	124	122	122	120	121	120	133
상승률 (표준편차)	5.7 (3.1)	7.6 (4.7)	6.7 (3.5)	6.4 (3.4)	5.9 (3.7)	6.8 (3.2)	7.0 (3.2)	6.4 (3.4)	6.5 (4.1)	8.0 (4.1)	7.8 (4.2)	7.7 (4.0)	7.4 (4.1)	7.8 (4.4)	7.6 (4.2)	7.3 (3.2)

자료: 물가연보, 연평균, 2000=100, ()는 전년대비 변화율임

상승하였다. 다른 “도”단위지역과 달리 경기도는 연평균 7.6% 상승하여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단과입시학원 물가지수가 1990년에 가장 낮은 41인 지역이 제주, 충남, 광주였다. 2004년에는 광주 180, 강원 157로 가장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2000년을 기준으로 단과입시학원의 물가추이를 보면, 광주(80%), 강원(57%), 인천(32%)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충북과 대전이 4-5% 상승으로 가장 낮았다. 2000년 1월 기준 명목가격으로 보면 광주 41,333원에서 80% 상승한 74,399원, 강원 50,833원(3개지역 평균)에서 57% 상승한 79,808원, 인천 34,500원에서 32% 상승한 45,540원으로 나타났다. 낮게 상승한 충북이 40,000원에서 4% 상승한 41,600원, 대전이 50,000원에서 5% 상승한 52,500원이었다. 단과입시학원 비용은 지역별로 절대가격으로는 2-3만원 차이가 있지만 백분율 상승률로 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년간(1990-2004)의 단과입시학원 연평균 상승추이를 보면, 광주시(12.28%), 강원도(9.37%), 전북(9.07%), 대구시(8.95%), 경남(8.36%), 전남(7.97%), 제주도(7.80%), 울

산시(7.49%), 인천시(7.23%), 충남(7.10%), 경기도(6.90%), 충북(6.15%), 부산시(6.13%), 대전시(5.96%), 서울시(4.55%) 순으로 상승하였다. “도”단위나 “시”단위라는 지역특수성에 대한 관련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가장 많이 상승한 광주시와 가장 적게 상승한 서울시는 연 평균 8%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입시학원 물가지수가 1990년에 가장 낮은 42-43지역이 울산, 경기, 서울, 부산, 대전, 인천이었다. 가장 높은 지역은 50-51로 전남, 충남으로 “광역시” 단위보다는 “도” 단위가 높았다.

15년간(1990-2004)의 종합입시학원의 연평균 상승률 추이를 보면, 전남(11.72%), 제주도(11.64%), 부산시(9.14%), 광주시(8.95%), 전북(8.56%), 경기도(8.49%), 울산시(7.49%), 강원도(7.37%), 인천시(7.23%), 대구시(6.94%), 서울시(6.75%), 대전시(5.96%), 충남(5.89%), 경북(4.22%) 순으로 높게 상승하였다. 대체로 남부지역에서 상승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상승한 전남과 가장 적게 상승한 경북과는 연 평균 7%의 차이가 있어 지역별로 차이가

<표 7> 단과 입시학원 물가의 지역별 변화 추이

지역	강원	경기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울산
1990	46	47	39	44	42	37	41	41	46	64	50	40	41	49	51	42
1991	50	53	42	44	51	40	44	46	48	68	55	42	41	59	53	35
1992	58	57	44	54	51	45	47	54	51	72	59	46	43	59	58	35
1993	73	61	48	64	52	50	61	67	54	77	63	52	45	69	61	35
1994	79	64	51	66	52	53	63	72	57	77	60	50	47	74	64	35
1995	79	81	58	66	61	66	67	76	65	89	75	59	73	74	76	48
1996	87	97	75	70	85	81	77	90	74	95	87	63	95	88	87	60
1997	95	101	97	80	95	91	89	92	84	98	90	81	96	99	88	74
1998	96	98	99	83	97	91	90	100	97	97	100	95	100	99	87	75
1999	96	95	99	94	96	89	90	100	97	97	100	95	100	88	84	80
20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2001	114	104	99	98	101	109	101	104	103	104	110	103	106	103	107	102
2002	130	105	108	103	101	113	110	103	102	108	113	110	121	104	110	102
2003	135	111	112	108	105	116	111	103	103	114	119	114	131	105	128	102
2004	157	116	114	118	114	120	112	103	104	118	112	129	180	105	132	103
상승률 (표준편차)	9.4 (7.1)	6.9 (8.2)	8.4 (9.7)	7.5 (7.1)	8.0 (11.7)	9.1 (7.7)	7.8 (8.5)	7.1 (8.0)	6.2 (5.6)	4.5 (3.9)	6.1 (7.9)	9.0 (8.5)	2.3 (16.8)	6.0 (9.2)	7.2 (7.4)	7.5 (14.8)

자료: 물가연보, 연평균, 2000=100, ()는 전년대비 변화율임

<표 8> 종합입시학원 물가의 지역별 변화 추이

지역	강원	경기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울산
1990	46	41	57	66	25	42	31	53	41	50	42	40	40	46	53	42
1991	51	44	60	73	31	43	33	56	43	53	46	42	39	48	54	44
1992	56	48	64	74	34	46	35	59	46	59	50	46	43	52	59	52
1993	67	55	69	77	38	55	37	62	49	63	53	52	46	57	65	60
1994	78	61	71	75	44	66	56	62	53	69	53	50	52	58	68	61
1995	80	75	73	75	51	71	71	65	63	84	73	59	67	64	72	61
1996	88	87	80	79	70	87	86	80	75	96	86	63	91	78	90	61
1997	92	93	90	88	81	94	93	90	92	98	93	81	105	90	98	67
1998	100	98	93	94	89	99	93	96	95	99	97	95	103	92	94	89
1999	98	99	94	97	91	100	93	97	96	100	99	95	95	92	91	90
20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2001	104	103	103	109	104	101	100	101	104	105	111	103	107	105	106	104
2002	109	110	108	112	105	109	117	106	106	112	122	110	110	114	112	113
2003	110	119	133	112	110	122	122	113	108	117	134	114	117	126	118	124
2004	121	126	137	116	111	128	134	117	110	123	137	129	125	128	125	132
상승률 (표준편차)	7.4 (6.0)	8.5 (6.3)	6.6 (5.8)	4.2 (4.0)	11.7 (9.9)	8.6 (7.4)	11.6 (13.5)	5.9 (5.9)	7.5 (7.3)	6.8 (9.3)	9.1 (4.4)	6.3 (4.4)	9.0 (11.6)	6.0 (9.2)	7.2 (7.4)	7.5 (14.8)

자료: 물가연보, 연평균, 2000=100, ()는 전년대비 변화율임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기준으로 종합입시학원의 물가상승 추이는 경남(37%), 부산(37%), 제주(34%), 울산(32%) 순으로 높게 상승하였다. 충북과 전남이 10-11% 상승으로 비교적 낮게 상승하였다. 지역별 명목가격의 변화는 통계청에서 자료가 제공되지 않아 파악하기 어려웠다.

V. 결 론

본 연구는 대학입시와 관련된 중고등학생의 교육물가 변화에 초점을 맞추므로써 기존의 교육비 지출규모의 실태 및 영향요인에 중점을 둔 선행연구들과 접목시켜 교육 정책 및 개선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하였다.

연구결과의 요약은 다음과 같다.

첫째, 15년간(1990-2004)의 소비지출 비목의 물가 중에서 교육물가가 연평균 7.3%로 가장 높게 상승하였다. 교육 서비스 하부 품목인 공교육 납입금물가는 연평균 7.5%, 사

교육 기타교육은 6.0% 상승하였다.

둘째, 중고등학생 납입금물가와 다른 교육단계의 납입금 물가를 분석한 결과, 전문대납입금, 유치원납입금, 사립대학 납입금, 국공립대학납입금, 중고교납입금 순으로 상승하였다. 기타교육 물가는 초등교과서, 중학교교과서, 중학교참고서, 가정학습지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셋째, 중고교의 교육물가를 전년대비 상승된 백분율의 평균으로 16개 지역을 분석한 결과, 중고교교과서, 중학교참고서, 고교참고서는 지역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단과입시학원물가에서는 광주시가 가장 많이 상승하였고 서울시가 가장 적게 상승하였다. 연평균 상승률의 지역별 차이는 7%정도였다.

2000년을 100으로 가정 할 때 광주 80%, 강원 57%로 가장 많이 상승하였다. 그러나 종합입시학원에서는 전남이 가장 많이 상승하였고 경북이 가장 적게 상승하였다. 단과입시학원과 종합입시학원의 지역별 물가변화의 차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상승률의 차이는 7%정도였다. 2000년을 100으로 가정 할 때 부산과 경남이 37%, 제주도

34%로 가장 많이 상승하였다.

연구의 결론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중고교물가의 세부항목에서는 중고교 교과서와 중학교 참고서가 연평균 8%로 가장 많이 상승하였고 그 다음으로 공교육물가인 납입금 물가와 종합입시학원 물가가 연평균 7% 상승하였다. 가장 적게 상승한 항목은 연평균 6% 상승한 고등학교 참고서와 단과입시학원 물가였다.

따라서 중고교 교육물가와 관련된 대부분의 항목들이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인 4.6%보다 높았다. 교육물가가 상승해도 교육비를 줄이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를(손상희·정영숙, 2003; 이성립, 2002; 소연경, 2000) 생각해보면 중고교의 교육물가 상승은 가계에 경제적 압박 및 긴장(stress)이 클 것이라고 짐작된다.

특히 2000년 이후부터 중고교 관련 공교육물가(납입금)와 사교육(기타교육) 물가가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두드러지게 높아지고 있어 최근 몇 년 동안 상승된 중고교 교육물가상승은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켰을 것이다.

가격의 결정은 중고교 관련 공급량과 수요량 사이의 균형점이라는 개념에서 보면 중고교의 교육가격(물가) 상승은 수요가 많아졌다고 해석 할 수 있다. 중고교 교육수요가 클수록 교육가격은 상승하고 상승된 가격(물가)이 다시 중고교생이 있는 가계에 경제적 부담이 되는 악순환이 발생 할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해본다.

지역에 따라 중고교납입금의 명목가격은(표2 참조) 대체로 15만원정도로 차이가 많이 없었다. 연평균 상승률의 차이도 2%정도로 차이가 많지 않았다. 그러나 2000년 이후부터는 지역에 따라 10% 이상의 차이도 있었다. 중학교 납입금 가격은 지역별 차이가 적고 고교납입금은 가격차이가 높았다. 상승률이 높은 지역은 주로 “특별시 및 광역시” 대도시로 그 지역의 소득수준, 소비수준, “도”단위 지역보다 높은 소비자물가 상승을 반영한 것 같다. 소비자물가지수는 2000년을 100으로 할 때 2004년도에 서울특별시가 116,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경기도가 114, 대구광역시, 강원도, 충남, 전북, 경남이 113, 충북, 전남이 112, 경북이 111로 나타났다.

단과입시학원의 명목가격은(표2 참조) 대체로 3만3천원

부터 6만 3천원까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연평균 상승률도 지역에 따라서는 연평균 8%정도의 차이가 있었다. 2000년 이후부터는 지역별 차이가 75%를 넘는 지역도 있었다. 가장 많이 상승한 광주시는 4만 1천 300원(표1 기준)에서 4년 후에는 80% 상승하여 명목지출액이 7만원 정도 상승하였다. 이러한 급격한 가격 상승의 원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추론해 해보면, 단과입시학원의 수요증감 변화, 교사의 질 변화, 학원시설의 개선 여부 등의 변인이 작용했을 것 같다.

종합입시학원의 명목가격은 통계청에서 제공하지 않아서 지역별 절대액수 차이는 비교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연평균 물가상승률의 지역별 차이는 7%정도 였다. 2000년 이후부터는 경남, 부산이 37%로 가장 많이 상승하였다. 지역별 물가 상승률 차이는 단과입시학원의 지역별 차이보다 다소 적었다.

중고교에서 강제적으로 지출을 해야 하는 공교육인 납입금가격이 2000년 기준으로(표1참조) 중학교 연간 30만원, 고등학교 연간 50만원에서 매년 연평균 7%를 상승한다고 가정하면 교육의 기회형평성 차원에서 저소득가정의 중고교 학생에게 불리하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불리한 가계에 대해 정부는 모자세대, 부자세대 중에서 소득이 낮은 가계를 대상으로 중고등학생의 등록금과 교재비 등 공교육비를 지원해 주고 있다. 그러나 전체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해 주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인 공교육 가격 안정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본다. 또한 정부는 중고교 관련 사교육 시장에서의 높은 사교육 물가상승과 동일한 중고교 항목이라 할지라도 지역마다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현상이 타당한지를 점검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교육시장이 형성되도록 지도 및 감독이 요구된다고 본다.

이 연구는 교육부에서 중요한 대학입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중고교의 교육가격 실태를 시계열적으로 지역적으로 파악하였다. 후속연구에서는 가격 상승의 원인이 교육서비스 질의 차이인지, 단순한 초과수요 증가인지를 알아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초과수요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교육중시문화 등을 고려한 지역별 교육중시문화 정도, 지역별 소득과 소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증자료로 행해져야 한다고 본다.

중고교 교육비 지출의 가격탄력성을 지역별로 추정 하기 위해 중고교 교육물가지수(물가연보)와 중고교 교육비지출액(도시가계연보)를 찾아보았는데 세부적인 항목이어서인지 두 자료의 각 변수마다 조합이 되지 않아 분석 할 수 없었다. 정부(통계청)는 도시가계연보와 물가연보가 세부적인 항목까지 연관지어 조사한다면 매년 출판되는 통계청 연간보고서의 가치를 높일 수 있고 연구자의 연구 효율을 높여 줄 것이다.

참고문헌

강이주, 성영애(1999). 가계소득감소 경험여부가 가계의 경제적 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학연구**, 10(2), 71-83.

김 욱(1995).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의 사교육 실태분석 -서울시내 고등학교 학생의 과외교습실태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논문.

김숙향, 김혜선(2004). 소비자물가변화에 따른 비록별 소비지출 상호작용 -준이상수요 체계 (LA/AIDS)모델로 추정. **소비문화연구**, 7(4), 129-145.

김현진(2004). 사교육비 지출 결정 변인 구조 분석. **교육행정연구**, 22(1), 27-45. 물가연보(1990-2004). 통계청.

박미희, 여정성(2000). 개인과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 및 유형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8(12), 189-206.

박상학(1992). 고교생 과외비용 서민가계에 주름살 되고 있다. **한국의 소비 생활**, 202-218.

소연경(2000). 도시가계의 소득계층별 소비지출 구조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8(12), 1-14.

소비자물가조사 가격월보(2000). 통계청.

손상희, 정영숙(2003). 중년기 가족의 교육비문제와 디지털시대의 해결방안 모색.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1), 49-60.

신세호 외 5인(1993). 과외수업 실태분석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정영숙(1996). 개인의 인적자본투자율과 경제적 복지. **소비자학연구**, 7(1)1-13.

정영숙(1999). 사교육비 지출이 소비패턴의 내재적 구조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학연구**, 10(4), 61-73.

양승실(2004a). **일본 사교육의 변천과 현황**(2). **현대사회연구소 지방자치 통권** 184호, 102-107.

양승실(2004b). 사교육 성행국의 과외정책 접근방법과 전략 탐구. **현대사회연구소 지방자치 통권** 186호, 101-105.

이성림(2002). 가계의 교육비지출에 관한 시계열분석. **대한가정학회지**, 40(7), 101-118.

이승신(2002). 가계의 사교육비지출과 경제적 복지. **대한가정학회지**, 40(7), 211-227.

이승신(2003). 가계의 재무구조가 사교육비지출에 미치는 영향 -소득계층별 접근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1(11), 151-169.

유형선, 윤정혜(1999). 도시가계의 사교육비 지출규모의 결정요인-일반계 고등학생의 과외사교육비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4), 159-171.

윤성인(1996). **고등학생자녀를 둔 가정의 과외학습비 지출에 따른 재정 문제**.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오영수(1992). 한국의 중학교교육수요에 관한 연구-사교육비지출의 소득탄력성 및 교육수요함수 추정-. **재정논집**, 6, 145-184.

연합신문(2005). "공교육비 부담도 만만치 않다", 2005년 9월 26일자.

연합뉴스(2005). "유치원, 학교 납입금 상승률 학원비 2~8배". 2005년 9월 26일자.
<http://blog.daum.net/mudlove/tb/3065821>.

한유경(2004). 사교육-비용과 문제. 한양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프리드리히 나우재단 **지방자치정보**, 147호, 26-38.

조선일보(2006). "수강료 파다 인상 단속", 2006년 3월 3일자.
<http://www.chosun.com/w21data/html/news/2000003>.

〈국문요약〉

이 연구는 교육서비스 가격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기존의 교육비 지출규모에 초점을 맞춘 선행연구들과 접목시켜 교육비 과다지출의 원인 및 개선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하였다. 분석기간은 15년(1990-2004)이며 자료는 물가연보이다.

첫째, 15년간(1990-2004)의 소비지출 비목의 물가 중에서 교육서비스 가격이 연평균 7.3%로 가장 높게 상승하였다. 납입금가격은 연평균 7.5%, 기타교육은 6.0%상승하였다. 둘째, 납입금가격은 전문대납입금, 유치원납입금, 사립대학납입금, 국공립대학납입금, 중고교납입금 순으로 상승하였다. 기타교육 서비스 가격은 초등교과서, 중학교교과서, 중학교참고서, 가정학습지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셋째, 중고교의 교육서비스 가격을 16개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중고교교과서, 중학교참고서, 고교참고서는 지역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단과입시학원에서는 광주시가 가장 많이 상승하였고 서울시가 가장 적게 상승하였다. 연평균 상승률의 지역별 차이는 7%정도였다. 2000년을 100으로 가정 할 때 광주 80%, 강원 57%로 가장 많이 상승하였다. 종합입시학원에서는 전남이 가장 많이 상승하였고 경북이 가장 적게 상승하였다. 대체로 지역별로 차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상승률의 차이는 7%정도였다. 2000년을 100으로 가정 할 때 부산과 경남이 37%, 제주도 34%로 가장 많이 상승하였다.

■논문접수일자: 2005년 11월 17일, 논문심사일자: 2005년 11월 18일, 게재확정일자: 2006년 6월 3일